

새만금 수산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2021~2025년까지 5년동안 식품 브랜드화 집중... 군산시, 유관기관과 협약 체결

군산시가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및 업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일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박병선 군산대학교 총장, 최재용 전북농림수산식품국장, 유관기관 및 수산가공기업인·어업인 50여명이 참석했다.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군산시, 유관기관 및 기업이 함께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하는 사업이

다. 이번 협약 체결로 2021년~202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530억원을 투입해 깨끗하고 안전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의 브랜드화 및 상품화에 집중한다. 총사업비 2,530억이 투입되는 사업에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에 약 950억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에 약 1,580억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새만금지구는 서해중부 황금어장의 중심부에

위치해 중국 등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풍부한 배후시장과 광역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새롭게 조성되는 수출가공 클러스터에는 수산식품 산화연구센터, 수출기업센터 등 각종 기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약50여개의 민간 수산식품 기업이 입주해 마른김, 조미김, 김스낵 등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시는 수산식품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새만금의 조기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약1,000여명 직·간접 고용창출과 2차 수산가공품 생산 등을 통해 약3,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돼 지역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의 경제 선순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갑준 군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예산을 조기에 확보해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가 군산사랑상품권 판매처 확대 국민은행과 추가 협약을 체결했다.

“상품권 구매·가맹점 환전 용이”

군산시-국민은행, 군산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추가 협약

군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상품인 군산사랑상품권 판매처 확대를 위해 국민은행과 추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국민은행이 상품권 판매 대행점으로 추가돼 기존에 4개 은행 72개 지점에서 5개 은행 76개 지점으로 확대된다. 관내 국민은행은 나운동지점, 수송동지점, 군산종합금융센터(평화동), 군산시점점 4개 지점이 있으며 4월부터 군산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를 개시한다. 김성우 지역경제과장은 “국민은행과의 추가협약 체결로 시민의 상품권 구매와 가맹점의 환전이 용이해졌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올해 하반기에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해 온라인에서도 상품권 구입과 환전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며 상품권 부정유통 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또 시는 상품권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상품권 구입→사용→환전으로 이어지는 상품권의 일련번호 흐름을 추적해 상품권 유통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지정 취소 및 부당이득금 환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상품권의 재할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유통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결핵예방관리 홍보활동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는 제9회 결핵예방의 날을 기념해 시민과 관내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에 결핵관련 콘텐츠를 배포해 기침예절안내와 결핵예방 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결핵은 조기검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2주 이상의 지속되는 기침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결핵검진이 필요하다. 시는 오는 22일 수송동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2주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진'이라는 주제로 무료 결핵검진 안내와 함께 결핵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한다.

보건소는 결핵 의심증상이 있는 시민에게 흉부엑스선 및 객담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했다. 집단시설 입소자 및 취약계층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실시하는 등 결핵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왕궁면 영모묘원

나무 3000여 그루 식재

익산시가 20일 나무심기 행사를 왕궁면 영모묘원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나무심기 확산과 제74회 식목일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서는 2만㎡의 부지에 미세먼지가 저감 효과가 뛰어난 편백나무(4년생) 3000여 그루가 식재됐다. 시 관계자는 “휴양·치유·교육의 공간으로 숲이 부각되고 있으며 숲을 찾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확대해 나가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 ‘지방재정집행 평가’ 우수단체 선정

지난해 11월 말까지 계획적 예산 집행 등에서 성과

익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8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20일 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집행 실적과 연말 예산집행율, 일지리사업과 SOC사업 관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재정집행 상황을 평가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등 연말 예산집행율 98.5%를 달성하고 예산·지출·사업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집행률을 높였다. 또한 예산액 1조4262억원 가운데 1조2210억원을 집행해 목표 설정 금액 1조1980억원을 상회하는 예산을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시는 지난 2018년 상반기 전북도에서 실시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대상을 받아 시상금으로 푸른 숲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2018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우수단체 선정은 전직원의 합심해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한 눈부신 성과”라며 “2019년 상반기에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지리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해외 수출상품 소형양배추 키움 행정력 집중

군산농업기술센터, 대만 등에 수출

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가 최근 몇 년에 걸쳐 해외수출 효자상품으로 떠오른 소형양배추 육성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40톤의 소형양배추를 수출했으며 올해는 일본과 대만에 600톤으로 대폭 늘어 수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형양배추 재배기술 및 병해충 관리에 대한 교육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는 컨설팅으로 진행돼 많은 재배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군산농업기술센터는 해외수출 효자상품으로 소형양배추 육성사업에 집중한다.

조성주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장은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해 소형양배추

를 수출 효자상품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경찰서, 유관기관 신호연동 체계 합동점검

군산경찰서(서장 안상엽)는 20일 관내 운영 중인 신호연동의 효율성 점검을 위해 유관기관인 시 교통정보센터와 합동으로 대학로 등 주요구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총 2주간 진행 예

정이며 동서축, 남북축, 대학로, 공단대로, 수송로 등 37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신호대기 개선을 위해서 진행했다. ‘횡단보도 안전보행 버튼’ 필요장소도 함께 점검 할 예정이다.

안상엽 서장은 “군산시는 교통정보센터가 운영됨으로 인해 원활한 차량소통을 보이고 있으나 이에 안주하지 않았다. 더 효율적인 신호연동 체계 구축을 위해 군산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차량소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해경, 서해안 고래류 불법 포획 단속 강화

최근 서해안에서 고래류 불법 포획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해경이 단속을 강화했다. 2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서해안에서 고래 불법포획 의심 선박의 출입항이 잦아짐에 따라 항공기와 경비함정, 상황실을 연계해 의심 선박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63km 해상에서 어선 A호(11t)를 고래를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적발했다. 해경은 A호 선장 J씨(54)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검거 당시 증거를 없애기 위해 해체한 고래를 주변 해상에 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67km 해상에서 같은 혐의로 B호(9.7t, 승선원 5명)의 선장 P씨(49)를 구속했다. 군산해경은 “고정익 항공기에서 고래 불법포획 의심 선박을 발견한 후

비호출 추적을 통해 경비함정과 연계해 고래 불법포획 현장에서 검거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불법 포획행위가 적발됐던 선박 31척의 명단을 확보하고 항·포구 출입항 시 검문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해 오는 5월 31일까지 불법 고래포획 및 유통 사범에 대한 단속이 나선다”고 전했다. 한편,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잡거나 작살 등 금지 어구 제작·적재, 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어기고 고래를 잡을 경우 수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 포획한 고래를 판매·유통·보관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